생각을 더하면

방정환이 들려주는 어린이 인권 이야기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를, 어린이를 부탁합니다!

독후활동지

오늘 글 | 송진욱 그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감수 · 추천

값 13,000원 | 발행일 2024년 3월 10일 | 도서출판 책속물고기

태그 / 주제어 #방정환 #어린이날 #어린이인권 #아동인권 #권리 #참여권 #평등권 #아동복지 #유니세프 #아동권리협약 #어린이헌장 #살색 #살구색 #차별 #평등 #아동폭력 #따돌림

분류 국내도서>어린이>사회/역사/철학>인권/평등
국내도서>어린이>동화/명작/고전>학습동화
국내도서>어린이>문화/예술/인물>한국인물
국내도서>어린이>초등3~4학년>동화/명작/고전
국내도서>어린이>초등5~6학년>상식/교양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57, 1112호 | 전화 02-322-9239(영업) 02-322-9240(편집) | 팩스 02-322-9243 | e-mail bookinfish@naver.com

책속물고기

어떤 내용인가요?

방정환 선생님과 함께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나요

어린이들이 걱정된 방정환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어린이를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떠났대요. 이 책은 어린이들이 걱정돼 차마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방정환 선생님을 며칠 더 이 땅에 머물도록 하고 미래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미래로 가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고 나면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않겠냐는 저승사자의 제안이었지요. 방정환 선생님과 저승사자를 태운 마차는 미래를 향해 떠납니다. 1951년, 1965년, 1970년 그리고 오늘날까지, 방정환 선생님은 외로운 아이, 배고픈 아이, 아픈 아이를 만나고 옵니다. 선생님이 꿈꾸던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은 아니지만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 곁에 '그 시대의 방정환'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지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행복한가요? 내가 행복하다고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행복하다고 미래에도 행복하다는 보장도 없지요.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거예요.

선생님 도움말

어린이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어린이도 어른들과 똑같이 소중하게 존중받아야 하지요. 사실 어린이의 권리는 어른들의 권리보다 먼저 보장받아야 해요. 아직 작고 어려서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야 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으니까 어린이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린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어린이를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책 속에는 시대별로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한 권리가 소개되어 있어요. 지금은 방정환 선생님이 살았던 때보다는 어린이 인권이 훨씬 더 잘 보호되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배고프고, 외롭고,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어린이의 권리를 어린이가 잘 알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어린이 인권을 계속해서 지키는 일이 될 거예요.

기본 내용 파악하기

기본 용어 이해하기
#요약하기, 개념 이해하기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방정환은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지 않던 1920년대에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썼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부르는 말조차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쓴 말이었다. 방정환은 어린이를 위한 강연, 잡지 발행, 박람회 개최 등 어린이 문화 운동에 힘썼으며, 어린이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방정환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인가요?

내용 파악하기	옛날 어린이들의 모습 #분석하기

1965년 정배는 왜 수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우리나라는 모든 어린이들이 돈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 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책 속에 나온 1960년대만 해도 학비가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어린이도 많았어요. 학교에 가기 싫은 날이 있다면, 학교에 너무나 가고 싶었던 그때 어린이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8년 정미는 점심 도시락을 먹지 않아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왜 도시락을 먹지 않은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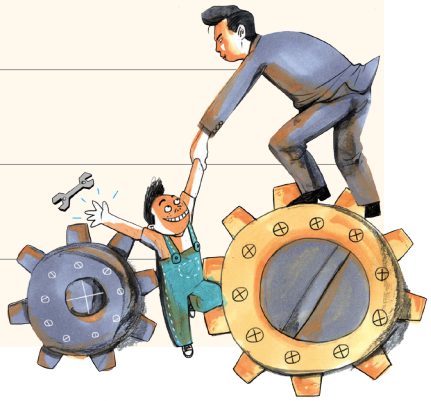
비판하기

어린이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옳고 그름 판단하기, 대안 생각해 보기

**1950년 상덕이의 형은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직 열여섯 살밖에 안 된 상덕이네 형은
어떤 권리를 침해받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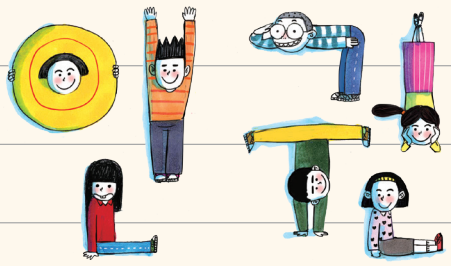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적인 기준이에요. 보호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등 어린이의 기본 권리가 담겨 있어요.

**1970년 열세 살 영숙이는 평화시장에 있는 공장에서 옷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영숙이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까요?**



상상 및 적용하기

만약 방정환 선생님이 살아 있다면?
#상상하기

방정환 선생님은 죽는 날까지 어린이가 걱정돼 "어린이를 부탁합니다."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만약 선생님이 살아 있었다면 전쟁 중 어린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상상해서 써 보세요.

1950년 육이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그중에는 나이 어린 학생들도 많았어요. 군대에 갈 수 없는 나이의 학생들은 나이를 속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동들은 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